

#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문제점

李京哲\* · 金大暎\*\*

(e-mail: kanzi22@empal.com · kimdy83@naver.com)

---

## 目次

---

1. 서론
  2. 연구방법
  3. 본론
    - 3.1.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문제점
    - 3.2. 실례분석과 현행 표기의 문제점
  4. 결론
- 

## 1. 서론

1987년 문교부의 편수자료에서 마련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기존의 표기법에 대한 연구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여 『교과서편수자료 II-1』에서 새로이 고시되었으며, 교과서편수자료가 2007년과 2011년에 거듭 발간됨에 따라 소소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판에서 변경된 부분은 파열음 및 파찰음의 자모음표에서 /ㅈ, ㅊ, ㅌ/에 관련된 표기이며, 2011년판에서는 내용상의 수정은 없고 자모음표의 양식이 바뀐 정도이다.

2002년판에서부터 시작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개정 방향성은 실례음, 즉 한국어를 가능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sup>1)</sup> 물론 그것이 한국어 모어 화자를 위한 표기법의 방향성으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국내에서 교과서편수자료로서의 역할뿐만

---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부교수, 일본어음운론(제1저자).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박사과정, 일본어음운론.

1) 교육인적자원부편(2002) 『교과서 편수 자료 II-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72

아니라 일본어 표기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글의 음성을 가능한 정확히 가나문자로 옮기겠다는 표기의 방향성은 오히려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일본인, 즉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 있어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의거한 표기는 그들의 외래어 표기 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표기들에 의해 매우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실례 조사, 타 기관의 표기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심도있게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항목에 대하여 실제 용례를 근거로 분석하고자 한다.<sup>2)</sup> 먼저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 2002년판과 2007년판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표기법 자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이후 실제 용례분석을 진행하는데, 실제 용례의 자료로는 한국관광공사 사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판 만들기에서 나타나는 표기를 사용하고자 한다.<sup>3)</sup> 이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하는 가나 문자 표기의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교과서 편찬과정 이외에 가나 문자 표기법의 수요가 절실한 관광계열의 최전선에서 어느 수준까지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통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통하여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개정 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3. 본론

### 3.1.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문제점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각 항들을 살펴보면 한글을 가나 문자로 정

2) 2011년판에서는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후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2007년판의 교과서편수자료에 수록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02년 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표시하도록 한다.

3) <http://kto.visitkorea.or.kr/kor/biz/fl/menu/request.kto>

확히 옮기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제3항의 표기세칙에는 한글을 국어의 표준발음법에 입각하여 가나 문자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낳았는데, 그 중 첫 번째로는 한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무분별한 표기의 추가이다.

(1) a. /ㄷ, ㅌ, ㅌ/ +

/ㅌ/ → テャ ; /ㄷ, ㅌ/ → テョ ; /ㅌ/ → テュ ; /ㅌ, ㅌ/ → ティエ

b. /ㅈ, ㅊ, ㅊ/ +

/ㅈ, ㅊ, ㅊ/ → チュエ ; /ㅈ/ → チャ4)

(1)의 용례들은 한국어의 발음을 일본어로 충실히 표기하고자 현대 일본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표기를 새로이 만든 것들이다. (1a)의 경우 /ㄷ, ㅌ, ㅌ/ + /ㅌ/ → テュ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외래어 표기에서 사용되는 가나표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또한 (1a)의 표기, /다·더·도·듀·대·데/ 등은 한국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기로, 굳이 일본에서 통용되지 않는 표기를 취하면서까지 한글의 변별력을 강화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제3장 표기 세칙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글을 가나 문자로 표기함에 있어 국어의 음운변화를 대부분 인정하는 등, 국어의 표준 발음법을 중심으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a)의 /ㄷ, ㅌ, ㅌ/ + /ㅌ, ㅌ/ → ティエ에서 볼 수 있듯이 Y계 이중모음인 /ㅌ, ㅌ/의 음가를 단모음인 /ㅌ, ㅌ/와 구별하여 표기하였고, [붙임]에서는 발음에 따라 ‘ㅌ’로 적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 제5항의 ‘예, 레’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는 부분을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ㄷ, ㅌ, ㅌ/ 이외에도 자질별로 분류된 다른 자모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자음의 ㄱ段’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붙임]에 명시하고 있다. 물론 한국어의 음운에 변별력을 강조하고 자모표의 통일성을 위한 조치였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의 표기를 인정할 경우,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방향성이 과연 음운에 있는 것인가 음성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1b)의 /ㅈ, ㅊ, ㅊ/는 모두 같은 표기를 가지는데,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 제2장 제1항과 제2항의 자모표5)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10모음체계를 따라

4) 교육인적자원부편(2002) 『교과서 편수 자료 II-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74

5) 교육인적자원부편(2002) 『교과서 편수 자료 II-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73-76

자모표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모표에서는 단모음인 /니/와 이중모음인 /내, 게/가 표에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분리된 제2장 제1항 【표1】의 모음표에 의거하자면 /니/와 /내, 게/는 다른 표기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sup>6)</sup>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성씨인 /최/를 가나 문자로 표기할 경우 /츠히/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sup>7)</sup>에 의거한 /츠히/를 사용할 경우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표기이므로 일본모어화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표기와 혼동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는 /6/의 원순성을 살리고자 한 표기이겠지만 일본모어화자가 /츠히/라는 생소한 표기를 보고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 의도한 발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 (2) 부록Ⅱ 3. 인명 표기의 현실화<sup>8)</sup>

(전략) 예를 들어 ‘崔’라는 성을 가나로 표기할 때에 지금까지는 ‘츠히’, ‘츠히히’, ‘츠히히’ 등의 다양한 표기가 사용되어 왔으나, 모두 정확한 발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나 문자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통일된 표기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2장 제2항의 원칙대로 성과 이름의 초성을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그동안 통용되어 온 성과 이름의 표기를 무시할 수 없어 관용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2)에서는 통일된 표기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관용을 인정한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니/의 표기가 이중모음인 /내, 게/와 통합되며 생긴 문제이므로, 현행 자모표를 유지할 경우 단모음인 /니/는 종전의 표기인 /츠히/를 사용하여 /내, 게/와 표기상의 차이를 두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 2002년판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었으나, 위의 사항은 2007년판에서 /즈, 츠, 썩/ + /니, 내, 게/ → 츠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2)는 여전히 수록되어 있다. 표기의 혼동을 줄이고 관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2) 역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1b)의 두번째 용례인 /즈, 츠, 썩/ + /나/는 /츠/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결코 옳은 표기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로는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

6) 혹은 10모음체계가 아닌 /니/와 /기/가 이중모음으로 처리되는 8모음체계로 모음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7) 교육인적자원부편(2002) 『교과서 편수 자료 II-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74

8) 교육인적자원부편(2002) 『교과서 편수 자료 II-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83

법> 부록Ⅱ에서 밝힌 아래의 내용에 근거할 수 있다.

(3) 부록Ⅱ 1.국어의 자음과 모음 ‘과’의 결합표기9)

(전략) 이것은 현행 일본어의 외래어 표기법상에 있어서 “반모음 선행 자음에 대응하는 행의 *イ/ウ*段의 문자, 또는 모음에 대응하는 *ア/ヤ*행음의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기(半母音は、「先行する字音に対応する音の行の*イ/ウ*段の文字」+「母音に対応する*ア/ヤ*行の音の小文字」によって表記)”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후략)

(3)에 따르자면 *イ*段의 문자는 한국어에서 Y계 이중모음에 해당되며, *ウ*段의 문자는 W계 이중모음에 해당된다. W계 이중모음에는 /과, 거, 게/가 있는데 /즈, 츠, 쯔/ + 계열의 다른 표기가 모두 *タ*의 *イ*段과 결합되어 있어, 표기의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チャ*/의 발음은 /tʃa/이므로 W계 이중모음인 /과/의 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3)에서 언급한 원칙에 근거한다면 ‘*タ*行의 *ウ*段 + *ア*의 小文字’인 /*ツァ*/로 표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4) a. /스, 썌/ +

/과, 깨, 게/ → 스테 ; /거/ → 스테 ; /헤/ → 셰 ; /과/ → 스테 ; /거/ → 스테

b. /ㄴ/ +

/과, 깨, 게/ → 쯔테 ; /거/ → 쯔테 ; /헤/ → 니테 ; /과/ → 쯔테 ; /거/ → 쯔테

c. /ㄹ/ +

/과, 깨, 게/ → 르테 ; /거/ → 르테 ; /헤/ → 리테 ; /과/ → 르테 ; /거/ → 르테

d. /ㅇ/ +

/과, 깨, 게/ → 무테 ; /거/ → 무테 ; /헤/ → 미테 ; /과/ → 무테 ; /거/ → 무테

(4)의 용례는 마찰음, 유음, 비음의 자모표에서 추출한 것이다. /*셰*/를 제외한 나머지 표기는 모두 일본에서의 외래어 표기의 가나표에 존재하지 않는 독자적인 표기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의 표기는 한국어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기라는 것이다.

内閣告示第二号 外来語の表記

第1表									
ア	イ	ウ	エ	オ					
								シェ	

9) 교육인적자원부편(2002) 『교과서 편수 자료 II-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82

カ	キ	ク	ケ	コ					
								チュ	
サ	シ	ス	セ	ソ					
					ツア			ツエ	ツオ
タ	チ	ツ	テ	ト					
						テイ			
ナ	ニ	ヌ	ネ	ノ					
					ファ	フィ		フェ	フォ
ハ	ヒ	フ	ヘ	ホ					
								ジェ	
マ	ミ	ム	メ	モ					
						デイ			
ヤ		ユ		ヨ					
							デュ		
ラ	リ	ル	レ	ロ					
ワ									
ガ	ギ	グ	ゲ	ゴ					
ザ	ジ	ズ	ゼ	ゾ					
ダ			デ	ド					
バ	ビ	ブ	ベ	ボ	第2表				
ぱ	ピ	プ	ペ	ポ					
								イエ	
キャ		キュ		キョ					
						ウイ		ウエ	ウオ
シャ		シュ		ショ					
					クア	クイ		クエ	クオ
チャ		チュ		チョ					
						ツイ			
ニャ		ニユ		ニョ					
							トウ		
ヒャ		ヒユ		ヒョ					
					グア				
ミャ		ミュ		ミョ					
							ドウ		
リャ		リュ		リョ					
					ヴァ	ヴィ	ヴ	ヴェ	ヴォ

ギャ		ギョ		ギョ					
							テュ		
ジャ		ジュ		ジョ					
							フュ		
ビャ		ビュ		ビョ					
							ヴュ		
ピャ		ピュ		ピョ					
ン									
(撥音)									
ッ									
(促音)									
ー									
(長音 符号)									

상기의 표는 일본의 현행 외래어 표기표이다. (1)과 (3)에서 제시한 표기들 중 상기의 표에 해당하는 표기는 전체 26개 중 단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1개의 표기가 새로이 지정된 표기인데, 한국어의 음성환경 속에서도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표기를 위해 해당 국가에 없는 표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그 당위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sup>10)</sup>

그러므로 (4)를 포함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자모표는 한글의 자모 조합에 따른 음운의 표기를 취하기보다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나표에 근거하여 直音化를 거친 표기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5) 제2장 제3항 [붙임] 1. 받침의 표기에 사용하는 가나 문자는 작게 적을 수 있다.

속초: ソクチョ(ソッチョ)      합천: ハプチョン(ハッチョン)      김해: キムヘ(キムヘ)  
 군산: クンサン(クンサン)      달성: タルソン(タルソン)      박: パク(パク)      임: イム(イム)

(5)는 받침에 해당되는 가나 문자를 작게 표기한 용례들이다. 이러한 표기는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일본교재의 한글 독음이나 드라마의 일본자막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글의 음성을 직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의 音節末 障碍

10)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제시되는 가나 표기의 전체 수는 108개, 그 중 현행 일본의 외래어 표기에 사용되지 않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표기는 40개이다.

음의 음성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음운의 연장선인 표기법에 음성을 시각화한 (5)와 같은 표기는 있을 수 없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일본모어화자가 小文字화된 가나 문자를 접했을 때 그것이 音節末 障礙音を 나타낸 표기라는 것은 인식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한 (5)의 용례로 나와 있는 ‘군산’, ‘달성’에서의 받침인 /ㄴ, ㅇ/은 小文字화된 撥音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促音과 더불어 고유어와 차용어 등 이미 音節末 障礙音を 표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撥音を 한글의 받침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小文字化시켜서 표기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5)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항목이라 할 수 있다.

### 3.2. 실례분석과 현행 표기의 문제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현행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어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 꾸러져 실제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기가 나타난다는 것에 있다. 물론 국내 교과서편수자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로마자 표기법>과 같이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한 한글의 일본어 표기법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국내 교과서 편찬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 표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그 문제라 하겠다.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바로 관광업계이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어 모어 화자들에게 있어 한국어의 원음을 중시한 가나 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생소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11)</sup>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사례로 보았을 때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sup>12)</sup> 실제사례에서 나타나는 오용은 작성자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일본어 능력의 수준미달 등으로 해석할 여지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메뉴판 만들기를 이용하여,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시하는 가나 문자 표기와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6) a. 된장찌개 テンジャンチゲ      돼지갈비구이 テジカルビクイ  
 b. 쇠갈비 ソガルビ      쇠고기 ソゴギ      말육회 マルユツフエ

11) 한국관광공사 방한 외래관광객 현황(2011)에 따르면 전체 방문객 수 9,794,796명 중 일본인이 약 34%인 3,289,05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2) 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민경(2007), 이경규(2005), 장원재(2009), 정준희·이정숙(2007), 한탁철(2011) 등이 있다.



(6)은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자모표에 관련된 오류사항에 관한 용례이다. 먼저 (6a)는 자모표에 따를 경우 /ㄷ, ㅌ, ㅌ/ + /ㄴ, ㄹ, ㄱ/ → /ㄷㄴ(ㄹㄴ)/이기에 어두음절인 ‘된’과 ‘돼’의 표기는 /ㄷㄴ/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直音化 표기인 /ㄷ/를 사용하고 있다. 음식명 표기에 있어 실질적으로 ‘자음 + /ㄴ, ㄹ, ㄱ/ → ㅇ段자음 + 小文字화된 ㄴ’의 형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된, 돼, 쇠, 회/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sup>13)</sup>, /된, 돼/는 (6a)와 같이 /ㄷ/, /쇠/는 (6b)와 같이 /ㄷ/, /회/는 /ㄱ/로 나타난다. (6b)의 /소/와 /쇠/와 같은 동의어는 일본어 표기에 무리가 없는 한국어음인 /소/ → /ソ/로 통일되어 있으며, /회/는 /된, 돼/와 같이 直音化된 /へ/가 아닌 /ㄱ/로 표기된다. 즉 한국관광공사가 지닌 가나 문자 표기의 방향성은 일본의 외래어 표기표에서 존재하지 않은 표기는 지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음성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과 가장 상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향성의 차이와는 별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하는 메뉴판의 표기는 자잘한 오류가 많이 존재한다.

- |                               |                    |
|-------------------------------|--------------------|
| (7) a. <u>육회</u> ュッフエ         | 볶음밥 ボックムバブ         |
| b. <u>쇠갈비</u> ソガルビ            | 돼지갈비구이 テジカルビクイ     |
| c. <u>목야채비빔밥</u> ムク・ヤチエ・ピビンパッ | 말육회비빔밥 マルユッフエピビンパッ |
| d. <u>삼겹살</u> サムギョッサル         | <u>족발</u> チョッパル    |
| e. <u>목살</u> モクサル             | 주물럭쌈밥 チュムルロッサムパッ   |

(7a)의 ‘육회’의 한국어 발음은 국어 표준 발음법 12항에 의하여 [yuk<sup>h</sup>wɛ]이며, 가나 문자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 제3장 표기세칙 제2항<sup>14)</sup>에 따라 ‘ユクエ’로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ユッフエ’를 일본어에 가까운 표기를 지향한다고 하는 표기의 방향성에 의한 차이에서 온 표기라고 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유성음, 비음, 마찰음’ 앞에 促音が 올 수 없다는 일본어 음운규칙의 대전제에도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sup>15)</sup> (6c)의 ‘볶음밥’의 ‘볶음’이 한 단어이고 ‘육회’는 ‘육’과 ‘회’의 복합어이므로 보다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연음현상을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입장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일본의 서구권 차용어 표기에서 音節末 障碍音 /k/는 /ク/ 혹은 /ック/로 나타나지 결코 /ッ/의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확한 의미전달과 동시에 일본어에 적합

13) 된장, 돼지, 쇠고기, 회

14) 받침소리가 연음(다음 음절의 초성화) 되는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15) 차용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성음과 마찰음 /s, ʃ/ 앞에서 促音が 나타나나 /h/ 앞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한 표기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ユックフェ’, ‘ユクフェ’가 옳은 표기일 것이다.

한국어의 파열음 및 파찰음 /k, t, p, č/는 비음/m, n, ŋ/, 유음/r, l/과 모음 사이, 그리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된다. 예를 들어 ‘감기’가 [kamki]가 아닌 [kamgi]로 발음되는 것이 그 예인데,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도 이러한 한국어의 유성음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

(8) [붙임]1. 예사소리가 어중의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하면 【표2】의 ( ) 안과 같이 적는다.<sup>16)</sup>

경기: キョンギ	양구: ヤング	분당: プンダン
완도: ワンド	대전: テジョン	제주: チェジュ

한국어를 가나 문자로 표기함에 있어 어두에서 한국어의 유기음과 무기음의 변별력이 약하기에 배석주(2002)등에 의해 이를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보완하자는 논의는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러나 비록 이음(allophone)의 형태이지만, 공명음과 공명음 사이라는 환경에서 유성음을 실현할 수 있는 한국어<sup>17)</sup>에서 어중의 파열 및 파찰음의 표기는 변별력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7b)의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어중에서의 유성음화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표기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표기의 문제는 (7c)의 용례와도 연관성이 있다. (7c)의 ‘묵야채비빔밥’은 복합어에서 단어 간의 변별력을 두기 위하여 가나 표기에서 ‘묵’, ‘야채’, ‘비빔밥’의 각 단어 사이에 구두점 ‘·’을 넣어 구분하고 있다. 즉 한국관광공사의 가나 문자 표기에는 단어 간의 구별이 필요할 경우 구두점을 넣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구두점의 유무로 인한 표기는 극명히 달라진다.

- (9) a. 소갈비 : ソ・カルビ ; ソガルビ  
 b. 돼지갈비구이 : テジガルビグイ ; テジ・カルビグイ ; テジ・カル비・クイ

(7b)의 ‘소갈비’와 ‘돼지갈비구이’는 어느 쪽에도 구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두점이 없는 ‘돼지갈비구이’는 (9b)의 첫 번째 표기인 ‘테지ガル비グイ’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구두점이 들어가는 환경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7c)의 ‘말육회비빔밥’을 살펴보자. 동일한 비빔밥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묵야채비빔밥’에는 각 단어 사이에 구두점이 삽입되어 있으나 ‘말육회비빔밥’에는 구두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복합어에

16) 제2장 제2항 【표2】 파열음 및 파찰음

17) /p, t, k, č/ → [b, d, g, □] / S\_\_S

서 구두점의 유무 여부는 (9)와 같이 수많은 표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관계로 사용에 보다 철저히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sup>18)</sup>

마지막으로 받침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받침의 가나 표기는 다음과 같다.

(10) 【표 5】 받침

받침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ㄹ, ㄴㄹ	ㄷ, ㅌ, ㅍ, ㅂ, ㅃ, ㅍㅂ	ㄷ, ㅌ, ㅍ, ㅂ, ㅃ, ㅍㅂ	ㅁ, ㅁㅁ	ㄴ, ㄴㅅ, ㄴㅇ, ㄴㅇㅇ	ㄹ, ㄹㅅ, ㄹㅇ, ㄹㅇㅇ
대표음	k	p	t	m	n, ŋ	l
표기	ク	プ	ッ(促音)	ム	ン	ル

(10)은 한국어의 音節末 障礙音을 가나 문자로 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표기 세칙에서는 후속 音節初 障礙音에 의한 음운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다. 대표음 /t/가 促音만으로 표기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의 모든 대표음에 일본어의 무표적 모음인 /u/를 첨가하여 개음절 구조인 일본어에서 폐음절 구조인 한국어의 音節末 障礙音의 음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의 표기를 취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 서구권 차용어의 표기에도 대부분 (10)과 비슷한 표기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어의 音節末 障礙音 역시 위의 표기를 중용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d)의 용례에서는 音節末 障礙音이 대표음 /k/와 /p/임에도 불구하고 促音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기를 접한 일본어 모어 화자는 원래 단어가 가진 음가와는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 (11) a. 삼겹살[sam.gyɐp̚sʌl.] - サムギョッサル[sɑ.mu.gyos.sa.ru.]
- b. 족발[čk̚.pʌl.] - チョッパル[tʃop.pa.ru.]

(11)은 (7d)의 한글표기와 가나 문자 표기를 IPA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11a)에서는 ‘삼겹살’의 音節末 障礙音 [p̚]가 促音으로 처리된 ‘サムギョッサル’로 나타났다. 音節末 障礙音의 促音化는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도 표기 세칙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대표음 /k/와 /p/에서 나타나고, 후속 音節初 障礙音이 동일한 /k/와 /p/일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sup>19)</sup> 그 이유로는 일본어에

18) 이외에도 닭죽‘ﾀｸ・ﾁｭｸ’ - 잿죽‘ﾕｯﾁｭｯ’, 굴비백반‘ｸﾙﾋﾞ・ﾍｸﾊﾞﾝ’ - 계장백반‘게쟝뻬뻬뻬뻬’, 곱창볶음‘ｺﾌﾞﾕｯﾁｭﾝ・ﾌｯｸｸﾑ’ - 야채볶음‘야체볶음’, 닭살꼬치구이‘ﾀｯ살・ｺﾁｸﾞｲ’ - 닭꼬치구이‘ﾀｯｺﾁ・ｸﾞｲ’ 등 구두점의 등장환경이 일정하지 못 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2002)에서는 ‘아가씨’처럼 선행하는 音節末 障礙音이 없고 후속자음이 /ㅃ/일 경우 促音を 삽입하는 세칙이 있었으나, 2007년판에서는 삭제되었다.

서 促音が 담당하고 있는 음소의 범위가 넓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경철·김대영(2012)에서는 促音を撥音과 함께 CV언어인 일본어를 ‘제한적 CVC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 특수음소라 가정하고 후행하는 音節初 障礙音의 자질에 따라 /p, t, k, b, d, g, s, ʃ/의 음소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11a)의 한국어의 ‘삼겹살’에서 音節末 障礙音 [p̚]가 ‘サムギョッサル’처럼 促音으로 처리될 경우 후속하는 音節初 障礙音인 /s/에 의하여 /s/의 음소를 지니게 된다. 결국 위의 표기는 일본어 모어 화자가 발화할 경우 [sa.mu.gyos.sa.ru.]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표기에 의해 근원어인 한국어의 음가가 [p̚] → [s]로 변화될 것을 의미한다. (11b) 역시 ‘족발’의 [k̚]가 [p]로 변하게 된다. 이렇듯 音節末 障礙音を促音化하는 것은 가나 문자 표기에서 음절수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질 수 있으나, 원어의 음소가 변형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해야 할 사항이며,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따른 音節末 障礙音 표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7e)와 같이 音節末 障礙音が促音化되는 환경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표기가 다른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7b)와 (7c)에서 언급되었던 구두점의 유무, (7d)의 音節末 障礙音의 표기문제 모든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용례이다.

이렇듯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기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오용이 많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2002년 개정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개정전의 표기법이 가졌던 문제점인 한국어의 변별력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한국어의 모음 배열순서에 맞춘 자모표를 새로이 꾸렸으며, 인명 및 지명에 대한 표기의 변별을 표기세칙으로 보다 강화하였다.

그러나 한글의 음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직접적으로 그 표기를 접하게 되는 일본모어화자들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한글 음운의 변별을 위하여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독자적인 표기를 무분별하게 추가한 것에 있다. 이것은 개정 때 새로이 꾸린 자모표에 의한 것으로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되어 있어 直音化를 통한 단순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어의 모음 배열순서에 맞춘 자모표는 동일한 가나표기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오히려

동일한 가나표기에 해당하는 모음이 모여 있는 개정 전의 자모표보다 못한 인상을 준다. 특히 가나 문자 표기법에 있어 音節末 障礙音에 해당하는 받침의 가나 문자를 小文字化해서 표기한다는 등, 일본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표기가 존재하여 너무나도 한국어의 관점에 입각해 있다고 하는 방향성은 향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물론 한국에서 연구되고 공포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한국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찌보면 지당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주로 요구되는 곳은 바로 인명, 지명, 고유명사 등 관광계열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나 표기법에 의한 표기는 일본모어화자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표기로 그들에게 난해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하는 메뉴판의 표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관광계열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한글을 가나 문자로 표기함에 있어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 제시하는 자모표를 기준으로 하되, 일본의 외래어 표기표에 존재하지 않는 표기는 모두 直音化하여 표기하였다. 이것은 일본어 모어 화자를 의식한 결과가 표기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音節末 障礙音의 표기를 오용하거나, 어중에 위치한 파열·과찰음의 표기에 혼동이 있는 등 기본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표기이므로 만약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아닌 독자적인 표기법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일본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에게 결코 친절한 표기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2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일본어 모어 화자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 제시한 표기 중 일본의 외래어 표기표를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표기에 대해서는 直音化를 통한 일본의 현행 외래어표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参考文献】

- 강옥미(2003) 『한국어음운론』, 태학사. p.56-122
- 교육인적자원부편(2002) 『교과서 편수 자료 II-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72-97  
 \_\_\_\_\_(2007) 『교과서 편수 자료 II-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72-97
- 국어연구소편(1998) 『국어어문규정집』, 대한교과서.
- 김민경(2007) 「일본어(日本語)表記(표기)의 실태(實態)와 오용분석(誤用分析)-간판과 메뉴표시를 중심으로-」 『日本語教育研究』 第13輯, 韓國日語教育學會, p.93-107
- 박혜란(2007) 「한국 음식명의 일본어 표기에 대하여」 『日本研究』 第34輯,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p.359-382
- 배석주(2001) 「국어 파열음·과찰음의 가나 문자 표기 고」 『創意力開發研究』 第5輯, 경주대학교 창의력개발연구소, p.133-148
- \_\_\_\_\_ (2002)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의 개선 방향-외래어 표기법과의 균형과 조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日本語教育研究』 第20輯, 韓國日語教育學會, p.13-32
- 배주채(2010) 「현대국어 音節의 가짓수 연구」 『語文研究』 제38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67-89
- 이경철·김대영(2012)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대하여-한글의 音節末障害 音가나표기를 중심으로-」 『日本文文化學報』 第52輯, 韓國日本文文化學會, p.59-76
- 李丞宰(1993)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제3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p.23-38
- 이경규(2005) 「일본어 가타가나 표기에 관한 일고찰」 『日本文文化學報』 第26輯, 韓國日本文文化學會, p.141-153
- 장원재(2009) 「한국 음식명의 일본어 표기 혼용실태에 관한 일고찰-웹 문서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第45輯, 日本語文學會, p.207-224
- 정준희·이정숙(2007) 「한국어 고유명사의 일본어 표기에 관한 연구-일본 東京大久保지역의 한국음식점 간판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 第35輯, 大韓日語日文學會, p.205-225
- 조성문(2004)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 『음성과학』 第11권 제3호, 한국음성과학회, p.69-81
- 한탁철(2011) 「韓國의 飲食名에 보이는 日本語 가타가나表記에 대한 一考察-음식명 외국어 표기안내(부산광역시 발행)를 중심으로-」 『日本文文化研究』 第40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669-687

## 要旨

本研究では、韓国における現行の<国語の仮名文字表記法>の問題点と他の機関の表記政策について分析を行ってみた。その結果、次のような問題点を見出した。

<国語の仮名文字表記法>は韓国語の発音を日本語に充実に表記しようと、現代日本語には存在しない表記を新たに提示している。字母表で示している全体の表記、108個の中で40個が日本で使用されていない表記であり、韓国語の音節末障害音を表すのに仮名文字を小文字化して表記するなど、日本語の母語話者に混乱をもたらしている。

韓国観光公社が推進する事業の一環の‘外国語の献立作り’で提示している表記法の一つの特徴は、韓国観光公社は政治投資機関にもかかわらず、<国語の仮名文字表記法>の規則を守らず、独自の表記法を持っているところである。句讀点、音節末障害音の促音化、一貫性のない表記基準など多くの問題点を持っているが、<国語の仮名文字表記法>よりは遙かに日本語の母語話者を考慮した表記方法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もちろん、韓国で研究され、公布された<国語の仮名文字表記法>が韓国語を中心になされていることは、極めて当然のことかもしれない。しかし、韓国観光公社から提示している表記は<国語の仮名文字表記法>が日本語の母語話者と観光資源の供給者との要求を満たしていないという反証である。

以上のように<国語の仮名文字表記法>は日本語の母語話者を対象にする使用者に、けっして親切な表記法ではないことが分かった。そして、現在まで2回の改正が行われたが、日本語の母語話者に対する考慮は依然として行われていない。特に、<国語の仮名文字表記法>から提示した表記の中、日本の外来語の表記表を基準として存在しない表記については、直音化を通じた日本の現行の外来語の表記の枠から超えないように、大々的な改正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国語の仮名文字表記法、直音化、教科書の編修資料、外来語の表記

투 고 : 2012. 11. 30  
1차 심사 : 2012. 12. 15  
2차 심사 : 2013. 1. 5